

서부권

목포 남향 접안부두 균열 방치

준공 직후부터 수년째... 안전사고 위험 대책 시급

서남해 수산자원 관리와 불법 어업 행위를 지도하는 어업지도선이 이용 하는 부두가 수년째 접안부두 균열이 심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있다.

삼학도 남향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 어업지도선 부두는 지도선 안전점검을 위해 지난 2005년 26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및 배후부지 포장, 가설건물 전기·조명 등을 시설하고 준공했다.

이곳은 서해어업지도선 15척중 매일 절반의 지도선이 접안할 수 있는 임시 시설물로 준공직후 균열이 발생해 현재 40cm의 폭과 깊이로 심하게 균열이 되어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사진>

하지만 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나 사용하고 있는 서해어업지도선 등 어느 누구도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을 초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두는 목포 북항부두가 완료되면 이철환 계획"이라며 "이전후 내항에 있

는 관공선과 남향 및 깃바위 등에 있는 소형어선 접안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은 연약지반으로 준공 직후인 5년전부터 균열이 시작돼 지금은 어린이가 몸통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균열 상태로 방치돼 있다.

어민 박모(삼학동)씨는 "수년전부터 접안과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다 이제 다른 용도의 접안시설을 할 예산도 보수가 필요 없다면 그 동안은 왜 보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곳 어업지도선 임시부두는 통제 구역이지만 주민들이 낚시 등을 즐기고 있는 곳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편 현재 북항에 공사 가 진행중인 해경 및 어업지도선 부두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따뜻한 마음 배달이요"

이날 세미나는 전남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알리안츠 생명보험 목포영업사업단(단장 임대운) 직원들이 최근 독거노인 등 30여세대에 사랑의 연탄 3000여장을 배달하고 있다. 목포 유달동은 매년 독지가의 기탁과 실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전남 해양레포츠 활성화' 길을 묻다

오늘 목포서 '해양산업발전 국제세미나'

전남도 해양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목포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24일 신안 비치호텔에서 마리아, 해양레저장비, 해양레포츠 분야 국내외 전문가, 학계 관계자를 초청해 '전남 해양산업발전 전략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레저 기반시설인 마리아(SOC) 개발 및 조성, 해양레저장비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세미나는 해양레저분야 전반에 대한 전남의 현주소를 파악

해 중·장기적으로 전남 해양레저 산업 초기단계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주·일본 등 마리아산업의 국제적인 동향과 마리아 개발·운영 현황 및 최신 레저장비 설계 기법을 소개하고 마리아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산업협의체 구성방안, 전남의 비교우위 해양레포츠 발굴 및 육성전략 등을 발표해 다양하고 알찬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해양마리나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요트의 수출촉진 및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산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며 "서남해안 해양은 해양마리나 산업 개발·진흥 여건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만큼 해양마리나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해양마리나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요트의 수출촉진 및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산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며 "서남해안 해양은 해양마리나 산업 개발·진흥 여건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만큼 해양마리나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세미나에 이어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 한국 대표부 우상민 대표와 지난 7일 아시아담당(스티븐비스) 방문시 협의된 해양마리나 및 관광산업 육성과 투자협력 등 MOU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갖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군수협 자립조합 '눈앞'

을 위판액 875억원 사상최대...내년 경영정상화

부실조합이던 흑산수협을 흡수합병한 신안군수협 위판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위판액 1000억원 돌파와 함께 전국 최상위 자립조합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수협은 흡수합병된 흑산수협을 흡수합병한 신안군수협 위판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위판액 1000억원 돌파와 함께 전국 최상위 자립조합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신안군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흡수합병을 흡수합병해 총 자산 1416억원, 출자금 59억6000만원으로 출범하면서 위판액이 크게 늘어

주영문 신안군수협 조합장은 "전직원이 팔팔 뭉쳐 열심히 일한 결과 위판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지난해 공적자금 20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미처리 결손금(36억원)도 연말 모두 해결되면 내년 상반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MOU'도 졸업하게 돼 전국 최상위조합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수협은 부실조합으로 판정돼 지난 2003년 200억원의 경영정상화 자금을 받아 지난해말 모두 상환했고, 흑산수협을 지난 6월 흡수합병해 전국최대 병여·새우젓과 홍어 취급 위판장을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필기자 wncho@



'해남 달랑진성' 향토유적 지정

해남군은 올 하반기 향토유적보호 위원회를 열어 북평면 달랑진성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남창리 동쪽 해변에 있는 달랑진성은 석축 성으로 연산군 5년(1498년)에 건립됐지만, 성벽의 보존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해남군은 지난 2000년부터 향토유적 지정 작업에 나서 현재까지 '이유길 유희비각'을 비롯해 18개소를 향토유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철기자 dia@

완도 약산권역 농촌마을개발평가 '우수'

완도군 약산권역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0년 전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결과 우수권역으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지난 2008년부터 약산권역 사업을 착수해 '다도해의 보석, 건강, 휴양 약산마을'이라는 비전아래 ▲삼문산 사계관광화 ▲야이 되는 건강먹거리 ▲다도해의 작은 섬터 등의 기반시설조성과 주민의향량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약산권역은 복지관광 기반시설이 보강된 진달래공원, 구불바 야수공원의 성공적인 준공과 ▲소득시설기반인 흑염소 특화사업 ▲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활용 ▲권역 경관조성을 위한 테크로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5년연속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며 이어 우수권역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호기자 ejchung@



<약산권역 조감도>

한편 약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올해 1 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1부터 2년 동안 2 단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지희기자 dok20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ogo and company name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details on location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토지 매매 (Land Sale), highlighting a large plot of land for sale with details on area and loc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화정동 대주피오레 (Hwajeong-dong Daejupiole), listing a 66-type apartment complex with details on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